

“코로나 시대의 참호(塹壕) 속에서 하나되어 살아간다는 것”

- 기도하기 |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 찬송하기 | 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 성경읽기 | 가족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2:1-5)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말씀 나누기 | 가족 중 한 명이 아래 설교 요약을 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에 “성도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됨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과 하나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싸우고 분쟁하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와 복음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빌 2:2-3)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므로 그 사랑 안에서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연합하라고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가 하나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맛있는 소금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책망할 것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불화의 영이었습니다. 다툼은 사람의 지나친 편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편견은 때론 이성과 지성을 압도하며 심지어 신앙까지 넘어섭니다. 이것은 항상 불일치와 몰이해와 다툼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허영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평화와 연합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해 공동의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한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코로나라는 질병의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전쟁의 참호 속에서 하루 속히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호 안에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구분짓고, 고발하고 밀어내기보다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한 공동의 충성심”으로 하나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순적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 “영적 승리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예수와 복음의 승리, 개인적으로는 예배 승리. 예수 승리 예배승리라고 해서 ‘예승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참호 안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제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무릎기도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둘째, 성경 필사입니다. ‘필사영생(筆寫靈生)’, 필사하면 영혼이 다시 삽니다.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새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자세로, 둘째,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이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겸손이 다툼과 허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누가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도 침묵하면서 마스크 속에서 말수를 줄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겸손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내 인격으로 삶으로 언어로 계속 흘러 나갈 때, 비로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천신학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예수 믿는 내가, 하나됨을 보여줄 때, 나를 둘러싼 우리 공동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 삶에 조용히 드러나는 겸손의 인격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 은혜 나누기

1. (내용관찰) 바울은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무엇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까? (3절)
2. (연구와 묵상)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했습니까?
3. (결단 및 적용) 바울은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코로나 시대의 참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어 온전히 하나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승 캠페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복음의 승리, 예배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